

비선모임서 개성공단 폐쇄 논의...靑 민정수석 인사 개입 정황도

국정개입 의혹 일파만파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비선 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홍보와 연설 등의 분야에서 도움을 받다가 청와대 시스템이 정비된 이후에는 그만 뒀다는 박 대통령의 해명과 달리 최근까지 외교·안보 분야와 인사를 비롯해 국정 운영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확산하는 의혹=26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이석진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호성 청와대 부속 비서관이 거의 매일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최순실씨 사무실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임의 논의 주제로 "10%는 재단 관련 일이고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 관련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모임 시기는 올 봄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TV조선은 2014년 5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추천인 및 조직도'와 2014년 7월 신설된 뉴미디어비서관 등의 추천 관련 문건을 최씨 측근들이 일했던 사무실에서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2014년 11월 최씨가 청와대 부속비서관실 윤전주 행정관 등에게 박 대통령의 옷 등과 관련해 지시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보도했다. 또 2014년 9월에는 북미 순방 일정표를 한 달 전에 받아 각 일정 옆에 박 대통령이 입을 옷의 색을 적어놓았는데 박 대통령이 실제 이에 따라 입었다고 밝혔다.

JTBC는 2012년 12월28일 박 대통령이

2012년 北과 비밀접촉 문건

軍 "실제 접촉 있었다" 확인

청와대는 다시 모르쇠 일관

당선인 신분으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독대하는 시나리오도 최씨가 사전에 본 기록이 있는데 이 시나리오에는 남북 접촉 사항 등 보안이 필요한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최순실 씨가 받아 봤다는 서류에 지난 2012년 북한과 세 차례 비밀 군사접촉이 있었다고 언급된 것과 관련해 "실제 그 세 차례 군사접촉이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군의 한 소식통은 "2012년 12월께 북한과 세 차례(군사)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靑 "유구무언"=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최씨 의혹 제기에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정연국 대변인)는 무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참모들은 '도대대 어디까지 개입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언론의 보도내용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정도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언론의 의혹 제기가 과도하다고 보는 기류도 감지된다. 여기에는 최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실제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최씨 문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 외에 전제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도.

특히 최씨가 정호성 비서관이 전달하는 대통령 보고자료를 거의 매일 받았다는 보



‘뒷북’ 압수수색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자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두 재단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K스포츠재단 사무실에서 압수 물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도는 "사실무근"이라는 게 청와대 반응이다. 또 인사 관련 문건이나 외교 관련 자료 등을 최씨의 국정 개입 증거로 연결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나아가 최씨가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최씨가 수정한 대로 최종 연설문에 반영된 적이 없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국정 농단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최씨 문제로 박 대통령의 원칙·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받고 씩씩한 민심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순실 한국·독일에 드러난 재산만 수백억

강남에 200억대 빌딩

평창 땅·獨 호텔·주택 소유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20)씨와 독일에서 호텔과 주택을 잇달아 사들이고 이를 거점 삼아 생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부동산 소유 현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씨 모자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의 빌딩과 강원도의 땅, 독일의 호텔과 주택의 가치는 어림잡아도 수백억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6일 대법원인터넛등기소 등에 따르면 최씨의 재산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은 이른바 '최순실 빌딩'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이다.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이 빌딩은 4층까지 각종 식당과 마사지클럽 등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661㎡(200평) 크기인 이 빌딩의 터는 최씨가 32살 때인 1988년 다른 2명과 공동명의로 구매했다가 지분을 사들여 단독소유주가 됐고, 2003년 7월 현재 빌딩을 지어 보유하고 있다. 이 빌딩의 가치는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 수입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 모녀는 7만평에 달하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땅도 공동 소유하고 있다. 23만431㎡(6만9705평, 10필지) 10개 필지인 이 땅은 임야 11만410㎡(약 3만3999평), 목장 용지 6만8589㎡(약 2만 748평) 등으로 구성됐다.

2004년 최씨와 그의 전 남편 정윤희씨가 70%대 30%로 지분을 소유했다가, 2011년 정씨가 딸에게 지분을 증여하고 최씨도 지분 20%를 주면서 최씨 모녀가 절반씩을 가지고 있다. 이 땅의 가치는 그리 높지는 않아, 2012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4억 2천만원이었다. 현재는 7억~10억원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또 호텔과 주택 3채를 합해 수면 위로 드러난 최씨 모녀의 독일 부동산의 가치는 총 20억원 가량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씨가 과거 소유했지만 처분한 부동산도 눈길을 끈다. 최씨는 1996년부터 소유한 미사리 카페촌의 음식점 부지를 작년 4월 매각해 52억원을 손에 쥐었다고 한다. /연합뉴스

靑개편? 탈당? ...박 대통령 후속대책은...

여론추이 관망...이원종·황교안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사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 의혹으로 인한 정국 혼란이 가라앉지 않자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야 모두 박 대통령에게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총사퇴 등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일단 대국민 사과를 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장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과를 했으니 어떻게 될지 상황을 보면서 후속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대책이 마땅치 않아 여러모로 힘들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팽풍에 밀려 급하게 비선진 개

편이나 개각을 단행하면 국정 운영에 더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이하 청와대 비서진이 박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괄 사표를 내고 동반 사퇴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거론됐으나 이런 이유로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서 참모진 일괄 사퇴론이 나오고 있으나 '난파선에서 배를 버리고 떠나자'는 주장"이라며 "일괄 사표 제출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면적 인적 쇄신보다는 이 비서실장과 최 씨 의혹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일명 '3인방', 야당의 공세 타깃인 우병우 민정수석 등 최소한 참모들만 사퇴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도 '꼬리 자르기' 대책이라는 비

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전날 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카드인 박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도 일단 참모진 사이에서는 "아직은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결국 대선을 앞두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탈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지금 곧바로 탈당하지 않고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최선의 탈당 시기를 결정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 회의에서 내각 및 청와대 비서진 총사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최순실 본명은 최필녀

최근엔 '서원'으로 개명...이름 두번이나 바뀌 野 "주술적 멘토일 수도" ...靑 敎 의구심 제기

'최순실 비선 실세 파문'이 연일 정국을 뒤 흔드는 가운데 '최순실'이란 이름이 본명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쪽 사정을 아는 한 정치권 관계자는 26일 "최순실씨의 본명은 '필녀'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1979년 당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새마을봉사단 관련 기사에 최필녀(崔畢女) 사무총장의 이름이 당시 이 단체의 총재를 맡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종종 등장한다.

새마을봉사단은 최씨의 부친인 고(故) 최태민 목사가 1975년 창립한 대한국교

선교단이 나중에 이름을 바꾼 것이다. 최씨는 최근에는 이름을 '서원'으로 개명하기도 했다. 알려진 것만 해도 이름을 두 번이나 바꾼 셈이다.

한편 야당이 26일 최순실씨의 국정운영 개입 의혹과 관련, 종교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미르 재단도 미륵과 연결된다고 한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씨의 선친인 최태민 목사가 스스로 미륵이라고 했다"면

서 "지금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최순실의 사교(邪敎)에 쫓겨서 이런 일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중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표에 최씨가 자필로 보라·빨강·하얀 색깔을 써서 대통령의 옷 색깔을 집어넣었다"면서 "단순히 옷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 대통령 사주와 색깔의 궁합을 맞춰서 최 씨가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위해 색깔을 지장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지방이 잘한다, 대한민국이 자란다!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주민행복 꽃피우는 희망의 생활자치로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기간 | 2016년 10월 27일 ~ 10월 30일 장소 |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주최 | 행정자치부, 지방4대협의체 등 주관 | 행정자치부, 부산광역시

제4회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합니다

www.gaok.or.kr